



홍수와 가난과 이슬람의 나라 방글라데시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신실하신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는 2024년이 되시기를 손 모읍니다. 주위에 두꺼운 패딩과 모자를 쓴 사람들을 보며 이곳도 겨울이 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는 기침 감기로 2주 정도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몇 달간 건기가 되어 미세 먼지농도가 급격히 올라 세계에서 상위 몇 번째로 공기가 오염된 도시로 조사된 기사를 자주 보게 됩니다. 건기로 흙이 바짝 마른 상태에도 여전히 도시 곳곳에서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 뿌연 흙먼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 비의 소중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그동안 코로나와 총선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이스테마 행사가 수 많은 무슬림들이 모여 다시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로 인해 도로 통제로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수 백만의 사람들에게 대한 안타까움에 더 힘을 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뉴라이프 소식



성탄이 되면 시골에서 도시로 와서 일을 하던 부모님을 따라 성탄 휴가에 맞춰 다시 시골로 내려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골로 내려가기 전에 함께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특별한 예뻐를 드리고 게임도 하고 준비한 도시락을 나눠주며 새해에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며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외에 귀한 마음을 모아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셔서 아이들에게 후드티를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따뜻한 새 옷을 받아 입어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간다빠라 캠프



이전에 캠프를 진행할 때는 양철로된 좁은 교회를 안에서 진행하기가 어려워 근처 학교를 빌려 캠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하고나서 처음으로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교회들 중 몇 안되는 양철 교회여서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얼마 전 팀의 다른 선배님이 귀한 후원을 받아 고생하시며 건축을 진행하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쁘드리고 캠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목회자 분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힘을 더하여주시기를 기도하며 돌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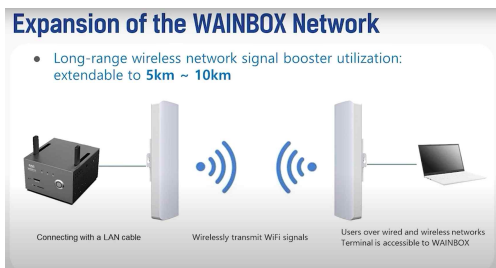
샤프마리학교



샤프마리학교도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 학교와 학생들을 돌아보고 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들의 농사일을 돕기 위해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새로운 교사가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이번 기회에 면접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맞기기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이어서 다시 다른 교사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시골에서 좋은 교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좋은 교사 분이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교사와 교육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전에 우연히 웨인박스(WAINBOX)라는 교육용 기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지에서 좋은 교사를 찾기 어렵고 도시에 있는 학교와 같은 좋은 교육 교재를 찾기 어려운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기에 담겨져 있는 커리큘럼에 따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기입니다.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교육소외지역과 선배지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자료 및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웨인박스에는 Kolibri와 Khan Academy, 위키피디아 외에 여러 교육용 프로그램이 들어 있으며 한대로 최대 200여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갑자기 정전되는 상황에서도 교육을 이어 나갈 수 있으며 내장된 배터리가 소진되어도 저전력 휴대용 외장 배터리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전기가 없고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E-Learning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나를 설치하면 학교 주변의 5~10km까지 떨어져 있는 학생들도 가정에서 접속을 해서 계속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하기는 샤프마리에서 이 기기와 노트북(아니면 테블릿)을 사용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아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GO업무 교육



1월부터 NGO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저희가 속한 단체의 헤드오피스에게서 행정에 대한 업무를 2일에 걸쳐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계 자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법도 배우고 전반적인 행정 절차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에 걱정도 많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며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항목별로 부과될 세금도 고려하며 예산을 사용해야 해서 가능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지혜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치원 소식



총선을 앞두고 시위가 과격해짐에 따라 정부에서 교육기관을 조기에 문을 닫도록 공문을 보내 유치원도 12월초에 방학을 해야 했습니다. 서둘러 발표회를 준비하고 오래 기다리며 준비했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그 자리에 모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전하고 부디 그 마음속에 싹이 나고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행사를 마쳤습니다.



1월부터 유치원도 새로운 아이들을 등록받아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새로 등원하는 아이들이 아직은 적응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일 어린 반 아이들은 교사 한 명이 감당하기에 어려워 보조 교사 한 명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테블릿 수업은 아이들이 어플을 교사를 따라 작동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작동을 하기도 하고 교육용 어플에서 빠져나와 다른 어플을 실행하는 등의 문제로 다시 다른 교육용 어플을 찾아 한 단계씩 적응하며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테블릿을 신기해하며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테블릿을 사용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부르심

하느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너의 부르심이라
하느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너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너님 날 도우시니 너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요즘 제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찬ㄴ입니다. 제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죄송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느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제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찬ㄴ입니다. 이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손 모읍니다.

2024년 캠프를 위한 말썽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가고 있는지, 하느님이 가라고 하시는지, 멈추라고 하시는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2024년이 되기 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ㄴ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도 하느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꾀해주세요

1. 2024년 주ㄴ학교 사ㄴ과 유치원, 샤프마리 학교의 계획들이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진행되도록

2. NGO 비자를 받기 위한 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선한마음으로 돕는 손길이 되도록

저희가 받아야할 서류가 행정부서로 넘어갔지만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류를 찾지 못하게 되면 이전에 다른 선ㄴ사님의 경우 체류 연장이 되지 않아 다시 한국으로 가서 다른 비자를 받아와야 했습니다. 부디 저희 서류가 찾아지고 나머지 절차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꾀를 부탁드립니다.

3. 샤프마리 학교에 1층 채플실과 2층 멀티미디어 도서관, 야학 건립을 위해

기독교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샤프마리 학교에 절반 가량의 무슬림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채플 시간을 통해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 형편으로 인해 어려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학부형들도 야학을 통해 글자를 배우고 학생들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도서관과 야학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4. 뉴라이프교회 재건축으로 선그원(유치원)과 호스텔 야학이 운영되도록
뉴라이프 교회는 수도 다카에 한 곳 뿐인 방글라데시 현지 성결교회입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의 한쪽 부분을 재건축을 해서 선그원(유치원)을 운영해 복음을 전하며 주변 무슬림들에게 야학과 문화교실들을 통해 관계전도를 해나가며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호스텔을 통해 아이들을 말쓰으로 양육해나가는 도시선그의 자립적인 모델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자합니다.

카톡 ID

ID: yoojangsu



죄송하게도 저희에게 연락처가 없어서 미처 소식을 못 보내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카톡 ID나 QR코드로 친구추가를 해주시고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